

'국정농단 의혹 중심' 문화창조벨트 폐기

박근혜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최종실시 관련 인사들의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으로 제기된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사실상 폐기된다. 대신에 기존에 있던 기능들을 일부 흡수·통합하는 식으로 개편이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지원정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K컬처밸리 등이 거점이 돼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계기로 이 같은 사업계획은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게

문화창조벤처단지, 콘텐츠코리아랩에
문화창조아카데미, 창의인재양성 사업에
문체부, 기존 기능들 일부 통합 개편
융합본부는 내년 3월까지 단계적 축소

된다. 대신에 기능을 통합·축소 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진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90여개의 콘텐츠 관련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지원하던 문화창조벤처단지는 기존 창업 지원사업이었던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에 통합해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로 새로 출발하기로 했다.

인재육성 거점으로 추진되던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은 융합벨트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인력양성사업으로 진행돼온 '창의인재양성' 사업으로 통합하고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개편해 내년 3월 흥릉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융합벨트 사업의 기획·자문을 담당했던 문화창조융합본부는 감사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단계적 축소 후 폐지하기로 했다. 이후 새로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의 관리 주체는 문체부로 일원화된다.

송성각 전 원장의 전횡으로 문제가 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해서도 원장 선임시 문체부의 결정권을 최소화하고 후보자 공개검증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콘텐츠 공모사업의 절차도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등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문제 및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육과정 등에 대한 향후 개편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이동희 전북도박물관미술관협회장 재취임

지난 15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사)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회 정기총회에서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이 제6대 협의회장에 재선출됐다.



제3대를 시작으로, 네 번째 연임된 이동희 회장은 현재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의 관장을 맡고 있으며, 전라북도 박물관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동희 회장은 "앞으로 2년간 전라북도 박물관·미술관을 대표하여 지역박물관·미술관이 발전하고 도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박물관협회 전북지역 박물관·미술관의 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7년에 창립된 전라북도 박물관·미술관 협의회이다. 현재 도내 박물관·미술관 가운데 총 41개관이 회원관으로 가입되어 있다.

신임 감사에는 조창환(카메라영상박물관장), 이민석(정읍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선임되었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소리문화전당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정성진)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을 무대에 올린다.

작품은 왕어버린 그림자를 찾아 웨디의 방에 들어오게 된 피터팬이 웨디와 그녀의 남동생 존, 마이클과 함께 환상의 섬 네버랜드에서 펼치는 모험 이야기로, 원작에 충실한 공연을 선보인다.

출연진은 라스베이거스 오리지널 플라잉 팀이 아니지만 수준 높은 와이어액션을 소화해내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플라잉 액션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반짝이는 요정가구는 뮤지컬 '피터팬'의 최대 볼거리다. 시시각각 변하는 화려한 무대, 아름다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플라잉 '피터팬'은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적합한 작품이다.

전북일보 문화센터는 이날 공연에 문화소외계층 어린이 300명을 초청,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의 문화 향수권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공연은 24~25일 오전 11시, 오후 2와 4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공연티켓은 VIP석 3만 5천원, R석 3만원. /정해은 기자

올 한해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방문객 100만명

군산시, 100만명 돌파 기념 기념행사... 행운의 주인공은 정지혜씨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2016년 한 해 방문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 20일 박물관에서 100만명 돌파를 축하하는 특별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문동신 군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의 100만번째 관람객은 서울에서 방문한 정지혜(24)씨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정지혜씨에게는 2인 가족 호텔숙박권을 비롯해 전자제품과 지역특산품을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또 99만9999번째 관람객과 100만번째 관람객에게도 선물을 증정했으며, 100만번째 이후 입장하는 관람객 100명에게는 전자제품과 군산시 대표살과 흰쌀쌀보리를 전달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지난 2011년 9월

30일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의 특화된 박물관으로 개관하여 지난해 81만명이 방문했고, 올해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여행주간 주요 관광지 방문객 현황조사에 따르면,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전주 한옥마을과 함께 전라북도의 대표 관광지로 보고되어 향후 성장 가능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문화관련 전문가는 "지역 박물관에서 한해 100만명을 넘는다"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큰 성과라며 "우리 민족의 아픔이 배어 있는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재조명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박물관으로써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는 지난 20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박물관 관람객 100만명 돌파를 축하하는 특별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의 100만번째 관람객은 서울에서 방문한 정지혜씨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김치를 활용한 한옥마을 음식관광 산업화 포럼 성료

"전주한옥마을의 김치문화를 상품화 하려면, 전주 음식과 음식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 음식문화콘텐츠를 보급·확산시키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21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김치를 활용한 한옥마을 음식관광 산업화 포럼'에 참석한 문준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교수는 "이탈리아의 피자·파스타·스파게티, 프랑스의 와인, 일본의 스시는 세계 어디서나 즐길 수 있으며 각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이들 나라의 자국의 음식 세계화를 위해 요리의 보급 못지않게 식문화의 확산에도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치와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주

김치문화 상품화를 위해선 우리 음식과 식문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문 교수는 "전주 음식문화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지역음식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가 기록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식조리법·역사·풍속 등 음식을 살아있는 문화로 생동감 있게 재구성하는 연구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전주 음식관련 기록의 복원 및 음식의 사회사·음식문화사·음식철학·음식미학 등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한식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덧붙였다.

전주시와 (사)한국음식문화협회의회가 개최한 이날 포럼에는 순홍과 전북대학교 교수, 문두현 지역관광마케팅연구소장, 김인순 공간사회가 등이 참석했다.

/정해은 기자

장 빼니코 사장 "천경자의 미인도는 위작"

"검찰이 발표한 내용은 주관적"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검찰 발표에 대해, '미인도'를 감정한 프랑스 루미에르 테크놀로지 연구소가 반박하는 입장을 21일 발표했다.

루미에르 테크놀로지 장 빼니코 사장은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코의 땃샘 등 다중적인 비교 분석결과 미인도는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본보 12월 21일자 12면> 이 연구소는 지난 11월 국내에서 감정을 끝내고 '미인도가 진품일 확률은 0.0002%'라고 발표했다.

루미에르 테크놀로지는 "한국 검찰이 우리의 과학감정 보고서는 전적으로 무시했다"며 "최신장비와 모든 전문적 기술,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과학적 분석에 전적으로 의거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한국 검찰이 논리적 근거도 없이 폄하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연구소는 특히 "최신 장비나 소프트웨어도 갖추지 않은 한국검찰이 자체 검사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극히 비과학적, 비논리적, 주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장 빼니코 사장은 "루미에르 테크놀로지 연구소는 수년간 투브르 미술관과 공조하는 등 미술품 감정에 있어 독보적 경지를 이루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25년째 '위작 논란'인 '미인도'는 '진품' 발표에도,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감정 이슈'로 다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스

25년째 '위작 논란'인 '미인도'는 '진품' 발표에도,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감정 이슈'로 다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스

24일 김제에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솔리스트 더블 캐스팅으로 더욱 화려해진 국립합창단의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공연이 오는 24일 오후 2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길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방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야심차게 준비하였다.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여 준비한 연주회로 구천 예술감독 특유의 섬세한 곡 해석과 국내외 연주경험이 풍부하고 뛰어난 기량의 솔리스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합창단과 바로크 음악을 전공하여 바로크 시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최상의 연주력을 가진 바로크 전문연주단체 카메라타 안티파 서울의 완벽한 하모니로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곽노태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2월 22일>

▶쥐띠
48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금전거래나 투자는 삼가라.
60년생: 좋은 일 하다 뺏기는 격으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금물.
72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84년생: 금전적 이익은 있으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지 못하다.

▶소띠
49년생: 가족과의 트러블이 예상되는 운.
61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73년생: 정신적으로 맑은 상태가 아니다.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85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으나 큰일은 어려우니 참고하라.

▶호랑이띠
50년생: 분주한 운이나 좋은 결실이 있는 운이나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62년생: 다른 사람에게 억압받을 일이 생긴다.
74년생: 황재수가 따르는 운이나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주의하라.
86년생: 인덕이 따르는 운이니 혼자 고민하지 마라.

▶토끼띠
51년생: 길이나 도우니 민사가 편안한 운이다.
63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75년생: 금전운이 좋아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
8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슬수가 따르니 말과 행동에 주의가 필요하다.

▶용띠
52년생: 출타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나 건강에는 좋지 못하니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64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는 시기이다.
76년생: 분주하고 정신없을때니 일을 차분하게 수행하라.
88년생: 동기들과 함께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뱀띠
53년생: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65년생: 작은 금액은 얻을 수 있으나 큰 금액에 관련된 것은 기다려야 이루어진다.
77년생: 사고수가 따르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기에 대해 재고해볼 것.

▶말띠
54년생: 너무 강하게 처신하면 적만 만드는 격.
6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니 주변을 잘 살펴라.
78년생: 동기들과 화합이 잘 되고 편안한 하루가 될 듯.
90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운이다.

▶양띠
55년생: 재물이 욕심을 부리지 마라.
6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겨나니 대립하지 말고 무시하라.
79년생: 출행하면 손재수가 따르니 금전관리에 유의하라.
91년생: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원숭이띠
56년생: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발생하는 운이다.
68년생: 부부나 연인 사이에 의견이 맞물려 마음상하는 일이 발생하는 운이니 주의하라.
80년생: 뒷사람하고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92년생: 원형은 삼가는 것이 좋은 운이다.

▶닭띠
57년생: 고집은 금물.
69년생: 아껴내 내 것이 되지 않을 상황이었으니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
81년생: 동기들이나 손아랫사람보다는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93년생: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신호임을 기억하라.

▶개띠
46년생: 식욕이 따르고 인덕이 생기는 운이다.
58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점심시간을 활용해 보라.
70년생: 너무 많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다. 주변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이 좋은 방법.
82년생: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마라.

▶돼지띠
47년생: 구슬수가 따르는 운이나 반응하지 않고 있으면 후반에는 풀린다.
5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더 큰 이익이 따르는 운.
71년생: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다.
83년생: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라.